

# “불교의 과학화·현대화 전법사 요람”

##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9월 2일 개교 및 입학식

불교 전문 석박사 과정 교육기관인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지광)가 9월 2일 개교했다. 설립자이자 초대총장을 맡은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대강당서 열린 개교식에서 가르치는 대학이자 수행하는 대학으로 세계적인 명사지도사를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광 스님은 개교식에서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이른바 명상 지도자 자격과정 등을 개설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은 특히 능인선원 서초동 본원이나 본원에서 포교원 운영 실무경험을 갖추고 포교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총장 지광 스님과 불교학과장 백도수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불교사상을 연구하는 불교학과와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불교학과 등 두 가지 과정을 개설해 20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석사 과정 첫 학기를 시작했다. 석사학위는 2년제 과정으로 입학 자격

### 20여 신입생 2년과정 등록

### 2015년 300명 수용 기숙사도

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혹은 법령 상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불교학과는 불교학과 전법학 전공이 있으며 백도수, 김재권, 고승학 교수가 지도한다. 또한 응용불교학과는 명상학과 융합 상담심리학, 융합심리치료학 전공이 있으며 명법 스님과 이경하, 임세라, 마커스 치탐(Marcus Cheetham)교수가 후학을 가르친다.

특히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교육과정 중 능인선원 본원이나 본원에서 포교원 운영 실습을 하고, 과정 수료 후 인턴십이나 레지던트과정으로 포교원 개원이나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포교원 개원 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법자료, 상담, 법당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자체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해외 포교원 전법 연수 기회 부여 등 특전을 부여한다. 또 1기 신입생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식에 모인 대중들이 테이프커팅으로 하며 학교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이 수료하는 2년 뒤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지난 2014년 1월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원 설립을 인가 받으며 불교 교육기관을 기치로 문을 열었다. ‘지혜’ ‘자비’ ‘정진’을 건학이념으로 현대 불교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자 교육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평 규모의 강의동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건축 중에 있다. 여기에 스포츠센터, 도서관, 강의실, 학보사, 세미나실, 방송국, 강당, 교수 연구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구비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아울러 향후 박사과정 개설 계획으로 불교 공부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 제공해 인장학금을 비롯해 금강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조교장학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광주지역 스님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종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광주지역 스님들이 참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주시민공동행동’ 행사가 8월 30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현지 스님, 연광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은 이날 광주역 집회와 총장으로 삼복서점에 이르는 6km의 시가행진에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미 지난 사건으



로 치부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더 이상 기만적인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죽림사 산사음악회... 지역 명인명창 출연

대웅전 앞마당 백일홍이 저가는 초가을, 사찰에서 마을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나주 죽림사(주지 법봉)는 8월 3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이 피는 세상, 나눔축제’ 2번째 행사인 ‘문명자와 함께하는 마당’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마을 신도들이 동참했다. 행사에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문명자 명인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해 가을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행사는 남도창(唱)의 시작을 알리는 보림(報念)이 선보였다. 보림은 불교용어로 본래 불교신도들 사이에서 생겨나 사당패가 즐겨 부른 장쾌하고 씩씩한 음악이다.

이어 판소리(최혜원) 흥부가, 사랑무(김선희), 가야금 병창(문명자의 4인), 살풀이(배선주), 남도민요 등이 펼쳐졌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남도 전례음악은 우리 삶과 흥이 덧붙여 죽림사 앞마당에서 문화잔치로 재현됐다.



법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배우도 마음이 편해야 제대로 연기하고, 서예가도 마음이 편해야 좋은 글씨를 쓰고, 화가도 마음이 편하고 얽매인 데가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며 “제2회 나눔축제에서 마음 한번 편하게 놓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죽림사 산사음악회는 지난 7월 첫 나눔음악회를 개최한 후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에서 와서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창고 이용한 사찰 원각사, 관음보살 점안



창고 속 석굴암에 관음보살상이 모셔졌다. 창고를 새롭게 만들어 절을 만든 나주 영산포에 위치한 원각사(주지 원광)는 지난 8월 30일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나주 원각사는 매우 독특한 사찰이다. 창고를 사용하던 곳을 사찰로 개조했다. 지붕은 원래 슬레이트 그대로 두고 벽도 그대로이다. 밖에서 보면 시골의 허름한 창고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법당과 요사 공간을 절묘하게 만들었다. 마치 창고 속에 있는 석굴암과 같은 형상이다.

나주 삼영동 100여 평 창고는 원래 시골주민들의 식당창고라 할 수 있는 정미소와 농협 창고였다.

원각사 주지 원광 스님은 “기존 시설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찰을 만들고 싶었다”며 “현대적 아름

다음에 갖는 도시의 재생, 버려진 것의 재생의 의미를 담았기에 기존의 틀을 벗어난 도량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안법회에 이어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초청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는 20여 명 스님들과 200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사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은 단청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관세음보살을 모셔도, 기도하는 사람이 사악하면 올바른 법이 아니다”며 “신도가 수행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모실 때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수덕사·홍성지역주지協 만해추모제



만해 한운은 선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만해추모제가 선사의 열반 70주기와 탄신 135주년을 맞아 8월 28~29일 스님의 출생지인 홍성에서 열렸다.

제19회를 맞는 이번 추모제는 홍성문화원 주최로 만해생가지와 홍성군청 여하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29일 선사의 생가지 만해사당에서는 탄신일을 맞아 다례가 열렸다.

이날 다례는 수덕사(주지 지운)와 조계종 홍성지역주지협의회(회장 덕원)가 주관했다. 다례에는 만해기념사업회 회장 웅산 스님과 홍문표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이상근 홍성군회의회장, 유한동 홍성문화원장 등 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뜻을 기렸다.

만해 한운은 선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

신을 기리고, 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 받아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에서는 만해 백일홍 및 사생회화대회, 시화작자 만들기, 부채 만들기, 만해 문학강연회, 마당극 ‘님의 침묵’ 공연, 추모공연 등이 펼쳐졌다.

추모다례에 앞서 28일에는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선사의 선양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만해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초대 기념사업회 회장에 수덕사 前 주지 웅산 스님을 추대했다.

만해기념사업회는 향후 학술발표회 개최, 만해학보 발간, 만해생가지 내 문학체험관 활성화, 만해장학회 설립 및 장학사업, 만해묘소 결성 생가지 주변 이전 추진 등의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덕환 기자

## 광주 향적사 대웅전·요사채 불사 회향

지리산 법계사 광주본원 향적사(주지 관해)는 8월 29일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를 회향하는 나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나성한 대웅전은 부처님을 비롯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측에 신중단과 영단이 조성돼있다.

나성법회에는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을 비롯해 신도 600여 명이 동참했다.

관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을 창건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늘 변함없이 법향이 가득한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적사는 지리산 법계사에 자주 올 수



없는 노(老)보살들을 기도생활을 위한 기도공간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두정동에 위치한 향적사는 연건평 9900㎡공간에 다보계시 전면 3칸의 대웅전과 식당·종무소·방사실을 겸비한 2층 규모의 요사채로 구성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망,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 (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가 어떤 것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리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령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